



## 원로 전기공학자 金善集 회장

대담 / 李光榮 (과학평론가 / 본지 편집위원)

# “에너지 기술진은 환경의 파수꾼돼야”

우리나라 항공통신 및 발송배전분야의 개척자로 전력행정에 많은 공을 세우고 10년 전부터 원로과학기술자문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기공학분야의 원로 김선집(金善集) 위즈덤 엔지니어링 회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까운 헬스클럽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수영으로 몸을 풀고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 마련한 그의 사무실로 나가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1919년생이니 올해 78세. 팔순을 앞두고 있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현역에서 뛰고 있다. 국내보다 국제적으로 더 알려진 김회장의 하루는 요즘도 무척 바쁘다. 청렴결백을 신조로 평생을 살아온 김회장택의 가훈은 청심과욕(淸心寡慾=마음을 깨끗이 하여 욕심을 줄이는 것). 김 회장은 열심히 살되 욕심은 내지 않는다.

■ 선생님은 어떤 성장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선친(金鐵中)은 인촌 김성수선생이 동아일보를 창간할 때 내부 살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당시 우리집은 서울 계동의 인촌선생댁과 발을 사이에 두고 이웃해 있었습니다. 선친은 후에 편집인겸 발행인을 지내셨는데 1926년 3월 5일 3.1운동 7주년을 맞아 소련의 국제농민회로부터 온 축사를 동아일보에

실었다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때 고등계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몹시 상심했습니다. 형(金善珉)은 한글학자로 1936년 영국에서 열리는 만국성음(聲音)학회에 나가 한글을 세계에 알렸다해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선친은 형이 하는 한글학회 일을 뒤에서 도왔는가 하면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같은 가정의 분위기 속

에서 자라면서 일찍이 민족에 대한 의식이 짝땔습니다.

### 최규하 전 대통령 등과 高普 동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재동국민학교(24회)를 다녔는데 선친의 뜻에 따라 1학년 때부터 원서동에서 조선무도관을 운영하던 강낙원선생(납북)의 문하생으로 검도를 배웠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성과경박사(작고)와 김동

오검사(작고), 고대교수를 지낸 김장수 박사(임학), 정용식박사(건축) 등이 재동국민학교 동기동창들이지요.

재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제1고보(경기 33회)에 들어가 처음에는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때 검도부가 생기며 상급학생중 검도하는 사람이 없어 검도부장을 맡았는가 하면 5학년 졸업반엔 나팔과 드림의 반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때 2년 후배인 김창규씨(전 공군참모총장)를 비롯해서 후배들을 데리고 용산에 있는 일본군 79 연대를 찾아가 나팔부는 법을 배우기도 했지요. 최규하 전 대통령, 민관식 전 국회의장서리, 이영섭 전 대법원장 등이 제1고보 동기동창들입니다.

■ 전기공학을 전공으로 택하게된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 先親의 뜻 따라 전기공학 전공

부친은 어린 나에게 “후에 최고 학부에 가면 물과 바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봄만 되면 가뭄으로 들녘이 타들어 가다가 여름이 되면 장마로 그나마 때내려 보내는 등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물과 바람을 잘 조절하여 다스리는 것은 농사에서 뿐만 아니라 적의 침입을 격퇴할 수 있어 국방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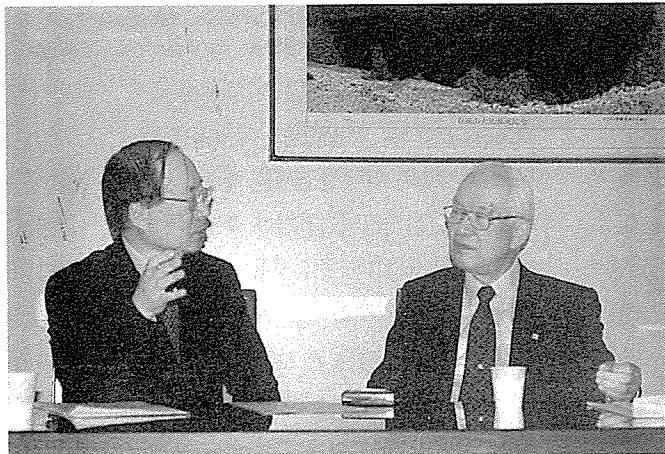
물과 바람을 조절하려면 고기압과 저기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는 길은 무엇보다 전기공학을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라 생각했지요. 당시 일본의 와세다

(早稻田)대학이 전기공학부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 와세다고등학교를 이과를 거쳐(41년) 와세다 대학 이공학부 전기공학과를 나오게(43년)되었지요.

■ 학창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좋은 하숙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어요. 일본 고등계 형사들은 한국학생 특히 항일(抗日)하는 집안 출신의 학생들에 대해서 감시의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하숙집 주인인 나시모도(梨本)여사는 1남 4녀를 둔 부자집 과부였습니다. 큰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을 면하기 위해 와세다 대학 교수에게 부탁해서 학생을 구했던 것이었요. 우연히도 이 집의 하숙생이 되었는데 고등계 형사가 뺨질나게 드나들며 하숙집 주인에게 나에 대한 동태를 캐물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숙집 주인은 나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신분보장까지 해서 다시는 고등계 형사가 드나들지 못하게 했어요. 식량사정이 어려웠던 전시중인데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 주었지요. 나시모도여사는 인텔리였습니다.



▲ 김희장(右)이 설립한 위즈덤 엔지니어링에서 부하관리 제어장치를 개발. 이 장치가 우리 정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니다. 그래서 상류층이 쓰는 고급 일본 말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50년 해방후 처음 일본에 갔을때 나시모도여사를 찾아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한달 월급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공학부장이었던 아마모도(山本忠興)교수와 직류송전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하노(畑野一郎)교수를 잇을 수 없습니다. 아마모도교수는 당시 드물게 보는 착실한 크리스천으로 부인도 영국에서 공부한 인텔리였습니다. 아마모도교수는 장래성이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봐 주었지요. 하노교수는 나에게 논문을 지도해 준 분으로 한국인이라 해서 차별하지 않고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하노교수는 해방후 연결돼 내 4년후배인 OSAKI전기 와다나베(渡邊和美)사장을 소개해 주어 지금까지 이 회사의 고문으로 관계를 맺도록 주선해 주었지요.

■ 해방되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창씨개명 않고 해방까지 버티

와세다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43년)하고 단기 육군기술장교로 중위에 임관돼 만주 진시(錦西)에 있는 일본군 육군연료창에 배속됐습니다. 일본 기술장교에 임관된 1943년 10월 지금의 아내(池炳淑)와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항공기 연료를 얻기 위해 진시에 5백만평 규모의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무순탄광으로부터 석탄을 캐다가 이곳에서 항공기용 액화연료를 만들고 있었지요. 기술장교만도 3백여명이 있었는데

데 자가발전(自家發電)설비 등 전기설비 일체를 맡아 일을 했습니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 장교로 있으면서도 이름은 '김선집' 그대로였습니다. 해방이 된 후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정락은(鄭樂殷·전 건설부장관)씨와 함께 가족들을 인솔해서 우여곡절 끝에 압록강을 건너 11월초 신의주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만주에서 3.8선을 넘어 집으로 오기까지 고생이 심해 한동안 요양을 해야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미군정청에서 통지가 왔어요. 과도정부 공업국장으로 있던 대학 선배인 유한상씨가 힘을 쓴 것이지요. 그래서 1946년부터 상무부 공업국 전기과 기좌로 있으며 47년엔 미소공동위원회 소속 남한측 대표로 북한으로부터 받은(受電) 수력발전소 전기요금 지불정산회담에 참석했고 50년엔 북한이 10만kw 송전을 단전한후 영월화력발전소 긴급복구자금 구입을 위해 일본에 출장을 가는 등 전력사업에 힘을 쏟다가 6.25를 맞았습니다.

■ 한국전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1.4후퇴 때 경기중학 2년 후배인 김창규장군의 주선으로 소령으로 특채되어 공군사관학교에서 정비와 통신분야를 가르쳤지요.

■ 휴전후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4년 제대를 하고 그해 11월부터 서울대 공대에서 항공통신 과목을 신설,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그러면서 55년부터 이승만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중앙산업 조성철사장의 권유로 상무로 들어가 57년부터는 서독주재 BETOMA K.G. 회사 한국측 대표로 원시력 콘크리트 전주와 흡관의 제조기술 및 설비도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사장은 전주와

침목에 사용하는 목재를 콘크리트로 대체해 보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맡게된 것이지요.

### 서울대공대 항공통신과 신설

59년부터는 대한전선 상무로 자리를 옮겨 60년엔 최신 전선 및 케이블 제조설비 도입을 위해 서독에 장기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1년 6월 29일 조선전업·남선전기·경성전기를 통합한 오늘의 한국전력이 발족되면서 상무로 옮겨 앉았지요. 그리고 1년후 기술분야를 총괄하는 전무로 승진해서 한전을 정상궤도로 올려 놓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 위즈덤 엔지니어링을 설립하신 것은 언제 어떤 동기에서였는지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한 대표적인 일이 있으시다면 ...

한국전력에서 세차래의 임원 임기를 마치고 퇴사한 71년입니다. 회사명을 '위즈덤'이라 한 것은 선친께서 지어주신 나의 호(智峰)에서 따온 것입니다. 위즈덤 엔지니어링은 미국식 경영방식을 택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게 됩니다.

73년 일본 OSAKI전기의 용역을 받아 스위스의 관련회사(Landis & Gyr)에 파견되어 전기제어기기를 조사연구한 끝에 「부하관리 제어장치(Duomax-Supermax)」를 개발했습니다. 용역사업으로 기초와 타당성조사를 해준 것일 뿐 모든 일은 OSAKI전기가 주도한 것이지만 이 장치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게돼 한전과 우리 정부에 필요성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지요.

당시만 해도 우리는 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도 정부와 5백kw 이상의 대동력 수용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

다. 이 장치는 전력을 부하(負荷)에 따라 자동으로 불요불급한 쪽으로부터 자동조절토록 하는 것으로 수용가측 전기요금 절약효과는 물론 한전에도 피크전력 조절효과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수발전사업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보람중 하나입니다. 이같은 국제적인 활동으로 해서 73년 일본 FUJI전기회사 고문으로 추대돼 지금까지 연관을 맺고 있지요. 73년부터 89년까지는 동양물산을 창업한 김인득씨의 권유로 회장을 맡아 경영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면서 74년에는 프랑스 FRAMATOM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어 원전 5·6호기를 짓는 일에도 관여했어요. 그리고 74년에는 한전 장래를 예측하고 석유파동에 대비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돕기 위해 호주와 남아연방의 석탄자원공급회사를 찾아다니며 타당성조사를 했지요.

■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에너지와 관계되지 않은 경제활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력기술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국가발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물론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참된 인간성을 갖춘 전기기술자가 돼야겠지요.

김선집회장은 대한전기기사협회 회장(75~76년), 한국UNIVAC사장(76~79년), 호주 석탄회사(Coal & Allied) 기술자문역(78~82년)을 역임했고 93년부터 서울국제씨어인스클럽 부회장으로 있다. 직류송전기술 등 10여편의 연구논문과 화재예방연기감지기에 대한 특허(74년)도 갖고 있다.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